

돈망삼관

| 용타스님 |

몸에 다가오는 감각적 다가움을 그대로 수용하는 기초수 수용, 위빠사나의 관법을 통한 깨어있음, 주체와 대상이 모두 빈 아공법공. 이 세 가지가 돈망에 이르는 길임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 19부)

074. 돈망頓忘의 인식認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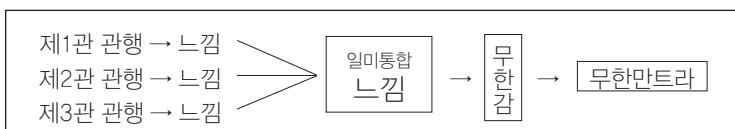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 [수행修行의 Before and After]를 조금 더 다루는 것도 좋겠지만 이 연재물의 핵심 주제인 돈망頓忘에 대한 마무리를 우선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19강은 돈망삼관頓忘三觀을 정리하는 일과 돈망에 들어 있는 인식체계를 정리하는 일로 엮으려고 한다. 억만 가지 벡터Vector 놀음으로 익어진 육창일원六窓一猿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호소해야 하는 것은 진정 돈망頓忘일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오늘도 외로움을 씹으면서 돈망가頓忘歌를 부르는구나 하는 마음이다.

* 돈망삼관頓忘三觀 정리: 돈망이란 사람 일반이 늘 접하는 유위법有爲法이 아니고 생소할 수 있는 무위법無爲法인지라 독자들 중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사람은 끝내 보다 지고한 행복을 지향해야 하고 또 지향하게 되어 있다고 볼 때 무위無爲에의 출구를 열어 주는 역할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용타단상이 그 한 몫을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다. 돈망 삼관에 대한 총정리나 돈망 배경에 있는 인지체계에 대한 논의도 무위에 이르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돈망을 위한 관행觀行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설명했지만 한 번 더

1) 여섯 개의 문이 있는 방 안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여섯 개의 문을 왔다 갔다 한다. 그 분주한 원숭이의 모습이 불안하기만 하다. 눈-귀-코-혀-몸-마음 등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가진 사람이 여섯 감각 기관으로 색깔-소리-냄새-맛-감촉-생각 등 여섯 가지 경계 나들이들이 설 새 없이 해댄다. 불안하기 그지없다.

자세하게 [깨달음과 닦음]이라는 차원에서 정리해 본다. ‘그냥 있다가 ~~~’를 관觀²⁾하면서 그냥 있는 감感(느낌)을 느낀다.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를 관觀하면서 기초수가 수용되는 감感(느낌)을 느낀다. ‘아공법공³⁾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 ~~~’를 관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느낌을 느낀다. 나아가 이 세 개의 관觀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무한 우주가 한 덩어리 빔쏘 내지는 한 덩어리 밝고 맑은 무한한 에너지 장場으로 확인되고 느껴진다.



무한감의 시간적인 지속성을 견지堅持하고자 한다면 돈망 의식상태에 적당한 명호를 붙여 만트라화⁴⁾해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어머니’의 인상을 놓치지 않고자 할 때 그냥 어머니 인상만 잡고 있으려 하면 그 견지가 쉽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식으로 염불하듯 ‘어머니’를 부르고 있으면 어머니 인상을 쉽게 놓치지 않게 되는 원리와 같다. 그와 같이 돈망頓忘이라는 의식상태를 경험(체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극히 짧은 돈망頓忘을 여러 번 관행觀行⁵⁾하는 것이 일차적인 점수漸修(後修)⁶⁾과정이겠고 본격적으로 의식意識 전반을 돈망모드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여러 시간 혹은 여러 날을 별시정

2) 의식공간에 떠올림

3) 출저 『공空』이라는 책에 공空을 이해하는 27가지 길을 안내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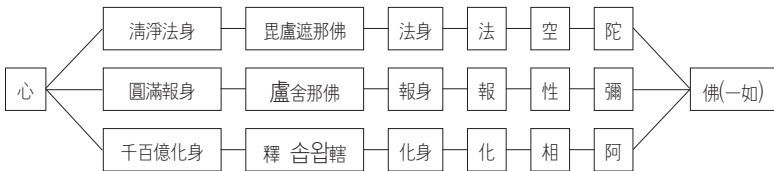
4) 주문형식으로 만들

5) 마음에 떠올리는 일을 반복해서 실천함

6) 점점 닦아감 혹은 깨달은 후에 이어서 깨울리하지 않고 수행해 감

진別時精進으로 밀어붙이기 수행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돈망頓忘으로 별시정진別時精進⁷⁾을 하고자 할 때는 명호名號를 붙여 무한 만트라화⁸⁾하는 것이 탁월하게 좋으니 이를 권장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그 명호名號가 ‘아미타불’이다. 즉 무한無限을 파지把持하여 무한無限에 ‘아미타불’이라고 이름을 붙여 관觀과 염念이 상응하는 심리상태를 견지하는 것이다. 진정 ‘이 무슨 복福인고!’한다. ‘아미타불...’하면 시비是非를 넘어선 일심법계一心法界가 더욱욱 확연해지니 말이다. 근세 대 도인이신 금타대화상金陀大和尚께서 일심법계一心法界(한 마음인 우주)를 공空－성性－상相=일여一如⁸⁾로 정리하시고 이를 인격화하여 불명호佛名號로 아미타불阿彌陀佛이라 이르셨다. 다음 표는 288자로 구성돼 있는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이라는 경전을 요약한 것이다. 이 보리방편문에 대하여 용타는 스스로 수없이 ‘인생이 무수한 것들과 만나는 과정이라면 보리방편문과의 만남은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귀귀最高最貴의 만남이다!’라고 독백해 왔고 고백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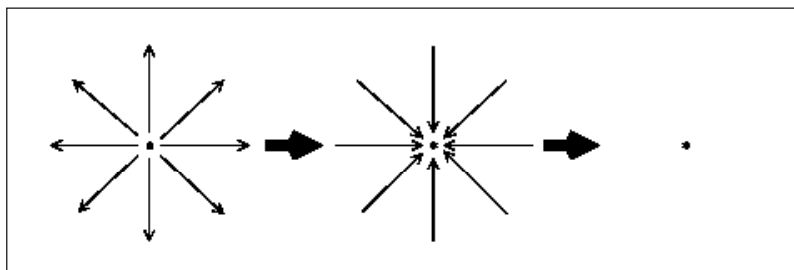


나는 인생에 있어 매사每事에 진정성眞情性 혹은 동기動機야말로 지극

7) 평소 일상생활 이외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수행함

8) 법계法界(우주)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본체론적으로 보면 모든 차별상을 떠난 빚의 모습이니 이를 공空이라 하고, 그 공空 속에는 허무적인 것이 아닌 무한 가능성이 가득 차있으니 이를 성性이라 하고, 공空과 성性이 현상現象으로 드러나면 무수한 아이템이 드러나니 이를 상相이라 하며, 이 공空과 성性과 상相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한 물物(something)이니 이를 일여一如라 한다.

히 중요한 덕성德性이라고 늘 뇌이고 있다. 이 언저리에서 나오고 있는 ‘관행觀行’이니, ‘점수漸修’니, ‘후수後修’니, ‘돈망모드’니, ‘별시정진別時精進’이니, ‘무한만트라화’니, ‘관觀과 염念’이니 하는 개념들에 대해 차분히 주석을 달아야겠다는 마음도 없지는 않다. 안내하는 글을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動機이다. 동기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理由와 그 이유의 치열도, 즉 열정熱情을 말한다. 돈망의 동기라면 돈망이라는 의식상태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돈망을 꼭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유가 불선명하고 열정이 취약하다면 동기가 약한 것이다. 동기가 약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돈망頓忘에 관한 이 글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이 줄곧 대상이 되는 무엇인가에 쏠려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회수回收해서 센터에 움직이지 않게 묶어두라고 권勸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돈망頓忘을 권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따를 것인가 해진다. 문득 진정성眞情性이니, 동기動機니 하는 마음이 밀려온다.



* 돈망頓忘에 들어 있는 깨달음의 메시지들

01. [그냥 있음]의 의식상태는 바로 불성佛性이요, 본성本性이며 자성自性이다. 마음공부인들은, 특히 불교 쪽의 마음공부인들이라면 ‘불

성’, ‘본성’ 혹은 ‘자성’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불성이, 본성이, 자성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막연해져버리지 않을까 한다. 일단 나도 과거에 그랬음을 고백한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무의식과 같은 그 어떤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나머지 불성이나 자성 같은 것은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처럼 여겨졌다. 아마 공부인 일반도 그러하지 않을까 한다. 그냥 있음으로 인해 지금여기의 깨어있는 의식을 확연히 경험하면서도 경험되는 그 의식意識이 아직 깨끗이 정화가 완료된 불보살의 의식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감히 불성이니, 본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명칭을 붙이지 못하고 24금이 아닌 18금은 금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결벽증 현상을 드러내곤 할 것이다. 그러나 번뇌즉보리煩惱即菩提와 같은 법리를 다소 이해한 공부인이라면 그냥 있을 때에 경험되는 깨어있음을 느끼면서 이것을 떠나서는 불성과 자성을 논할 수 없다는 자가 신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02. [그냥 있음]의 의식意識을 경험한다면 이 경험 이전의 삶이 얼마나 경계境界(대상)에 휘둘리면서 살아왔는가를 반성하게 된다. 1987년 여름 어느 날 곡성 태안사에서 의식意識이 저곳이 아닌 이곳으로 수렴收斂되면서 ‘아~! 과거에는 단 한 순간도 내 의식은 지금 여기에 있어보지를 못했구나!’ 하고 안으로 탄성歎聲을 올렸다. 방점傍點이 지금여기에 찍히면서 경계놀음은 놀라우리만큼 쉬게 되었다. 의식의 방점이 저곳에서 이곳으로 찍히는 사건은 하나의 결정적인 깨달음이었다. 방점이 이동되자 곧 ‘구도라는 이름으로 동분서주하던 발걸음이 이곳에 멈추며 더 이상 향하여 갈 곳이 없구

나!’ 하는 외침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왜 그토록 모르고 헤맸다는 말인가!’ 하는 독백이 터져 나왔다.

03. 아공법공我空法空. 불교가 깨달음을 운위云謂할 때 제1 깨달음은 단적으로 아공법공我空法空이다. 석가모니의 보리수 하의 대각大覺 내용인 연기緣起－무아無我－해탈解脫이 그것이요, 용수의 팔불중도八不中道가 그것이며,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위시한 반야부 600부 경전이 그것이다.

깨달음으로서 아공법공의 의미를 정리하기 전에 아공법공我空法空이 돈망파지를 위한 방편으로 등장할 때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987년 여름, 각성점두 경험 이후 지금여기에 깨어있는 의식意識을 의식意識하는 심리과정心理過程인 각성점두 辟逐頭⁹⁾를 동사섭고급과정으로 설정하고 처음 한동안은 이것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

얼마 후 각성점두를 ‘옴’으로 개칭하였다.

옴(각성점두)을 깨닫게 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인식해가면서 고급과정 방편이 감각을 허용하지 않는 ‘옴’으로부터 감각을 허용하는 ‘

9) 각성점두 辟逐頭: 1987년 여름, 지금여기 그냥 깨어있는 순수의식純粹意識을 처음에는 ‘각성점두 辟逐頭’라고 이름을 붙였다. 각성점두는 글자 수가 많고 발음이 부드럽지 않아서 적당한 이름을 찾던 차 ‘옴’이라 이르기로 했다.

옴나'로 변화 발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여기 개념이전으로 깨어있는 '옴나'체험이 쉽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쉽지 않은 이유가 '나다~.'하는 자아 의식自我意識 때문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무아觀無我觀을 고급과정의 조방편助方便으로 끌어들었다.

그러다가 주객主客 전체(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아공법공我空法空이라야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공법공我空法空을 고급과정의 조방편으로 정립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돈망頓忘을 [아공법공我空法空을 전제한 옴나]라고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아공법공我空法空을 돈망을 위한 한 보조방편 축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공법공은 그 체험으로 보나 불교사적 위상으로 보나 돈망을 위한 보조 축이 아니라 '옴나: 깨어있음'에 버금가는 주축이어야 함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옴나가 내용이라면 공리空理(아공법공)는 형식이 되되, 이 양자 사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주조主助의 관계가 아니라 내용을 취하면 형식이 따라오고 형식을 취하면 내용이 따라오는 주주主主의 쌍벽관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불교사적으로 볼 때 형식 축인 [공리空理(我空法空)]는 팔정도의 제1정견의 범주에 들고 내용 축인 [그냥 있음(깨어있음)]은 팔정도의 제7 정념正念의 범주에 들지만, 세친世親의 유식철학에 이르러 팔정도의 제7 정념正念은 유식철학唯識哲學의 핵심核心으로 자리매김됨으로써 공리空理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주주主主 관계가 된 것

이다.

사실상 많은 마음공부 촌의 분위기를 보면 위빠사나 메뉴 하나로 성불을 다 결정할 것으로 알고들 있는 것 같다. 그것은 팔정도를 깊게 살피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고, 나아가 불교사를 모르는 일 이요 통찰 깊은 제대로의 체험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마저 생긴다.

내가 처음에 깨달은 각성점두는 세월이 지나면서 위빠사나와 거의 같은 동질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위빠사나든 각성점두든 팔정도의 일곱 번째 정념正念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국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놀고들 있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옴나’ 명상만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공법공을 끌어 들인 것은 놀라우리만큼 탁월한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아공법 공我空法空은 불교역사 차원에서 볼 때 불교의 핵심核心이자 정점頂點이었기 때문이요, 체험적으로 볼 때에도 공관空觀은 깨어있는 의식을 무한無限으로 열어준다는 점 등 때문이다.

04. 아공법공我空法空은 인류의 구원론救援論이다. 사람의 영성적 타락은 단적으로 세상을 향한 분별分別－시비는是非로부터 시작하는 법이니, 그 분별시비分別是非를 원천봉쇄源泉封鎖시켜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개념이전概念以前の 법리法理인 공리空理(我空法空)이기 때문이다.

05. [깨어있음]과 [아공법공]은 서로 독립된 해탈방편이다. [깨어있음]과 [아공법공]은 내용과 형식으로 어우러져 있다. [깨어있음]과 [아공법공]은 서로 인과상응因果相應하는 상보相補 관계이다. 곧 [깨어있음]과 [아공법공]은 서로 독립된 해탈방편이되 서로 인과상응因果相應하는 상보相補 관계이며, 내용과 형식으로 어우러져 있는 짝개념이다.

06.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냥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심하게 있는 것이 개념이전概念以前인 [옴나]이며 돈망頓忘의 핵심이다. 이처럼 무심히 있으려고 할 때 무심히 있을을 방해치는 것이 있다면 무엇들이겠는가? 마음과 오감五 을 자극하는 세상 전부이다. 세상 전부는 주主와 객客, 곧 아我와 법法일 뿐이니 아공我空으로 주主가 사라지게 하고 법공法空으로 모든 객客이 사라지게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무심한 의식 상태가 될 것임은 당연하다. 그래서 돈망을 정의定義내림에 [아공법공을 전제한 옴나]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옥상옥屋上屋과 같은 기초수수용基礎受收容이 보태진 것이다. 왜였을까? 미국 여행 때 앓은 지독한 기침감기 덕택이다. 묘공거사 댁에서 ‘기침으로도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 있겠구나!’할 정도로 하룻밤 내내 멈추지 않는 지독한 기침을 경험했다. 심한 기초수基礎受 앞에서는 돈망頓忘도 무력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기초수는 결국 아법我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치열도가 높은 특수한 아법我法은 아공법공我空法空 정도의 관행으로는 어찌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임을 절감했다. 그래서 기초수基礎受를 별도로 수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자각이 왔다. 기초수基礎受를 수용受容하

는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기침을 하면서 수용 작업에 들어갔다. ‘그래! 기침감기를 앓을만한 원인을 내가 심었을 것 아닌가!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불조계서 감심인수甘心忍受라 하셨지 않는가!’하고 사유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을 그대로 느껴주었다. ‘또 한 편, 나의 이 기침감기는 무한 우주의 중중한 연기 과정에 빚어진 파생물이니 진정한 책임의 주체는 우주님이 니다. 이 고통을 우주님 당신의 몫으로 돌려드립니다.’라고 사유하면서 한편으로는 끌어들이면서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심법계(우주)에 회향하는 관행을 했다. 좋은 경험이었다. 우연이었지만 기침은 가라앉았고 평상심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기초수용 작업의 마지막에 한 마디를 첨언하면서 기초수 철학을 완결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이처럼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해탈시키는 일은 바로 우주천국을 위한 한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다.

기초수수용의 길을 요약해본다. 지금여기 나의 행불행의 단적인 단서가 되는 기초수를 그대로 느끼어주는 일을 하되 가끔은 [내가 지었으니 내가 달게 받아야 순리이다.], [이 기초수는 우주의 부분집합이요 우주 자체의 몸짓 한 자락이니 우주의 몫으로 돌려준다.], [이처럼 여기에서 나의 몫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한 모퉁이를 정화하는 것이다.]라고 배경 법리를 사유하는 것이다.

좌우지간, 일반적으로는 아공법공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초월관행을 하고 뽀족한 사안일 때에는 특수대응으로 기초수수용基礎受容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깨어있음] 축과 [아공법공] 축으로 구성된 돈망법이 [기초수수용]이라는 한 축을 더하여 돈망삼관頓忘三觀이 된 것이다. 완벽한 짝개념인 [깨어있음]과 [아

공법공]을 비집고 들어가 설치되어 있는 [기초수基礎受 수용受容]은 진정 절묘한 방편이다. 일반론에 들어 있는 특수론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상론理想論에 따르는 현실론現實論과 같은 상황이 바로 [깨어있음]과 [아공법공]을 비집고 들어가 설치되어 있는 [기초수 수용]이다. 한편 생각해볼 때 행복이란 기초수수용基礎受受容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07. 혹여 이러한 논의들이 복잡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해가 된다. 그러나 마음을 지고한 경지에 끌어올리고자 하고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끌어 올리고자 할 때 그것을 위한 접근법이 팔만대장경이요 사서삼경이요 바이블 등이다. 이러한 방대한 경전에 비하면 위의 논의들은 그 만분의 일도 안 된다. 심한 복잡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심한 단순도 안 된다. 여기에서도 중도中道라는 말이 떠오른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회주,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空空,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 등이 있다.

(재) 행복 마을 재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저자 용타 | 출판사 대원사 | 정가 12000원

용타 스님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마음 닦는 일에 대한 불교 관점의 입문서이자 지침서다. 불교월간지 『대중불교』 등에 실어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복과 행복의 조건, 생활 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의로의 산책, 명상 잡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0분 해탈 -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

저자 용타 | 출판사 불광 | 정가 12000원

생활도 수행이다!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 『10분 해탈』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뿐 아니라, 선불교를 바탕으로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을 끌어들이어 '동사섭(同事攝)'이라는 집단수행프로그램을 만든 저자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대원사, 1997

년)에 이은 두 번째 수행 지침서다.

이 책은 불교 월간지 『불광』에 3년간 연재해온 〈생활 수행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매일 1편씩 10분간 읽으면서 해탈을 이루어 궁극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동사섭 수련프로그램 안내

동사섭(同事攝)이란, 불교의 사섭법(四攝法: 布施攝·愛語攝·利行攝·同事攝) 중의 한 개념이다. 사섭법이란 보살이 중생을 향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베풀고(보시섭), 경우에 따라서는 자애어린 말로 더붙고(애어섭), 또는 이로운 일로 도와주고(이행섭), 나아가 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동사섭) 삶의 태도를 말한다. 본 동사섭수련회에서는, 동사섭의 개념을 사섭법 중의 동사섭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보시, 애어, 이행을 다 아우르며, 세상에 존재하는 유정 무정의 개개 날날이 우주의 주인공이되 날날이 서로 평등하게 어우러져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만 존립할 수 있으니 우주 전체가 한 생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일체(一體) 사상을 뜻매감하여 쓰고 있다.

동사섭 수련프로그램은 용타스님이 개발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다. 칼 로저스의 엔카운터를 씨앗으로하여 1980년부터 수련하여 왔다. 현재는 〈삶의 5대 원리-정체(正體)·대원(大願)·수심(修心)·화합(和合)·작선(作善)의 원리〉를 학습 주제로 하여, 의식의 전개 과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지인(至人)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이론과 실습의 체계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과정(5박6일), **중급과정**(3박4일), **고급과정**(3박4일)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평소에는 홀수 달, 셋째 주 월요일에 개설되어 있다.

홈페이지: <http://www.dongsasub.org>

연락처 055-962-1070 / 이메일 office@dongsasub.org